

# 1/ 전후 천황제와 젠더\*

황태자비 마사코의 시련과 황실의 위기를 중심으로

권숙인



**권숙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Politics of *Furusato* in Aizu, Japan: Local Identities and Metropolitan Discourses”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은 일본의 주변지역인 아이즈 지역에서 외부 자본과 담론에 대응(항)하며 자신들의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한 에스노그래피다. 주변부 집단의 정체성, 이주와 이산,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식민지배기 조선 내 일본인 학교」 등이 있고, 최근 저서로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 『현대 일본의 전통문화』 등이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로 있다.

\* 이 논문을 위한 자료 수집과 아이디어 전개의 의논 상대로 현재 히토쓰바시대학에서 수학 중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과정 지은숙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 1. 마사코의 시련과 황실의 위기

2013년 정초, 『아사히신문』은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황태자비 마사코의 근황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sup>1</sup> 기사에 따르면, “적응장애”를 앓고 있는 마사코의 요양생활이 장기화되어 10년째를 맞고 있으며 올 6월이면 결혼생활이만 20년에 달하지만 그 절반을 요양생활로 보낸 셈이 된다. 이어서 기사는, 2004년 7월 궁내청이 마사코의 상태와 관련해 “적응장애”라는 진단명을 발표했지만 의료전문가들로부터 이 진단과 치료방침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있음을 지적하고<sup>2</sup> 마사코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치료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라고 평하고 있다. 새해 벽두에 어울리지 않는 이 음울한 소식은 “7년에 걸친 황태자의 구애” 혹은 “헤이세이(平成: 1989~) 신데렐라”의 주인공으로 포장되었던 황태자비 개인의 비극적 반전이자 전후 일본 황실에 대해 반복적으로 형용되어 온 ‘위기’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다. 만세일계(万世一系)의 신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황실의 역사는 위기의 반복이었다. 전후로 국한할 경우 위기의 핵심에는 천황제를 둘러싼 제도와 시대적 변화 사이의 불협화음이 있다. 그리고 현재 국면에서 그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주요 고리 중 하나가 천황제에 내포된 젠더 문제다.

1990년대 이후 황실과 관련해 가장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황태자 나루히토(德人)의 결혼과 여제(女帝)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1993년 초, 오랫동안 무성한 소문과 여론의 무자비한 취재경쟁의 대상이 되었던 나루히토의 결혼 문제가 마침내 해결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 많은 일본인들은 진심어린 축하를 보냈다. 더구나 힘들게 성사된 이 혼인의 상대가 화

1 『朝日新聞』, 2013. 1. 8.

2 위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매뉴얼은 적응장애를 “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반응으로 정신적·행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의 진단기준은 충족시키지 못하나 심한 고통을 수반한다.”라고 정의한다. 2004년 궁내청이 ‘적응장애’라 발표한 당시부터 이 진단명이 마사코의 상태를 제대로 표현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아사히신문』 기사 역시 “치료가 연 단위로 장기화될 경우에는 적응장애라 하기 힘들고 우울증 등을 의심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전문가 말을 빌려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그림 1〉 약혼 내정을 알리는 잡지와 황태자 결혼 기념우표

려한 학력과 경력, 직업을 두루 갖춘 ‘커리어 우먼’이라는 사실에서, 마치 한 세대 전 현 헤이세이 천황과 미치코 황후의 혼인 때처럼 황태자의 결혼을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읽어내고 싶어 한 일본인이 적지 않았다.<sup>3</sup> 또한 이 결혼은 마사코 개인의 인생여정과 일본 황실이 갖는 속성 사이의 엄청난 대비 때문에도 국내외의 많은 이목을 끌었다. 지극히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성장배경에 엘리트 학벌과 직업을 갖춘 여성이 더할 나위 없는 고색창연한 전통을 고수하는 황실로 혼입(婚入)한다는 점은 영화나 동화의 스토리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극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마사코의 황실 혼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과 낙관적 전망이 주로 유포되는 가운데, 수차례의 고사 끝에 결국 결혼에 응한 마사코의 ‘선택’에 안타까움과 동정심을 표하거나 향후 황실에서의 생활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는 소리도 있었다.

결혼 후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러한 우려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3 향간에 잘 알려진 사실대로 황태자비 오와다 마사코(小和田雅子)는 부친이 외교관인 덕분에 어린 시절을 러시아, 일본, 뉴욕을 오가며 성장했고, 고등학교 과정을 보스턴에서 마치고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 경제학을 전공했다. 하버드 대학 졸업 후 다시 도쿄대에 입학했다가 바로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해외연수 차 옥스퍼드 대학에서 2년간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해 북미조약국이라는 엘리트 코스를 타며 경력을 쌓고 있었다. 5개 국어에 능통하다는 보도를 더하지 않더라도 뛰어난 능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해외유학마저 기피하고 소극적이라고 비판받는 일본 젊은이들의 이미지와 비교할 때 매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이미지를 발신했음은 분명하다.

1993년 6월 9일에 거행된 결혼식 직후부터 황태자비가 황실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과 그런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소식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올해 초 『아사히신문』의 기사는 그간 반복적으로 불거져 나온 불미스런 소식의 연장선일 뿐이다. 결혼식 이후 황태자 가족과 관련된 큼직한 흐름만 살펴보자.

우선 결혼식 4개월 뒤인 1993년 10월, 미치코 황후가 쓰러졌고 이후 1년 가까운 기간 실어증을 겪었다. 언론이 수개월 동안 미치코를 집중적으로 비난한 것(일명 ‘미치코 배싱’)이 원인이라고 거론되었다.<sup>4</sup> 특히 황태자 부부와의 입장 차이와 갈등이 주목을 받았다. 나루히토 부부가 해외 방문을 포함해 자신들 방식으로 ‘공무’(公務)를 하고자 했던 반면 천황 부부와 궁내청 지도부는 황위 계승자를 낳는 것이 이 부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 생각했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공무를 요구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실제 외무성에 압력을 넣어 황태자 부부에 대한 외국의 초청을 중간에서 차단·거절했다는 것이다.

실제 마사코에 대한 후계자 출산 기대와 요구는 약혼 발표가 나면서부터 표출되었다. 약혼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자녀 출산에 관한 질문이 나왔고 결혼 후에는 아들이 태어날 것을 바라는 기사가 넘쳐났다. 그러나 결혼 후 3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없자 압박은 점점 심해졌고 ‘불임’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등장했다. 5년이 지나자 포기하는 태도와 함께 “인공수정이 가능한 나이”에 대한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다. 1999년 12월, 마사코의 36세 생일 직후 ‘임신 징조’ 기사와 함께 언론이 흥분했으나 곧이어 유산되는 일도 있었다. 드디어 2001년 4월, 황태자비가 임신했다는 공식발표와 함께 궁내청은 언론에 절제된 보도를 권고했고 같은 해 12월 1일 무사히 아이가 태

4 이 기간 동안 주간지와 월간지의 미치코 배싱은 미치코가 독선적이어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천황마저 휘두른다. 모진 시집살이를 시켰던 황태후가 병석에 누우며 더욱 고약해졌다. 이제는 본인이 시어머니가 되어 마사코를 구박한다는 식이었다. 이런 기사들이 주로 보수 우파 경향의 잡지를 통해 나온 것이 이해적으로, 이 시기 미치코 배싱은 헤이세이 천황 부부가 추구해 온 ‘열린 황실’ 기조에 대한 우파들의 불만으로 이해되었다. 박진우, 「여성·여계천황론과 상징천황제」, 『일어일문학』 41집, 2009.

어났다. 황태자 부부가 결혼하고 8년 6개월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임신 소식에 대한 환호와는 달리 출산 직후의 기자회견장은 환호 대신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sup>5</sup>했다. 여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육아 등과 관련해서 황태자 부부의 ‘적응’은 수월치 않은 듯 보였고 2003년 12월, 마사코는 대상포진으로 쓰러져 입원을 했다. 결혼생활 1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어 다음해 2004년 5월에는 유럽순방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황태자의 전례 없는 폭탄성 발언이 이어졌다. “마사코의 경력과 그것에 근거한 마사코의 인격을 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라는 ‘폭로’는 황태자비가 겪는 ‘시련’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황태자의 처신에 대한 동생 후미히토(文仁)의 비난이 더해지며 황실 가족 내 세대 및 형제 간 갈등을 암시하는 고약한 스캔들로까지 비화되었다. 같은 해 7월, 궁내청은 마사코의 상태에 대해 ‘적응장애’라는 진단명을 발표했다. 이후 마사코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는 일 없이 요양과 치료가 계속되었고 황태자비로서의 공무는 매우 축소되었다. 그동안 궁내청은 시종일관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착실히 회복 중”이라는 모호한 발표만 반복했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2010년 2월부터 그동안 결석을 반복하던 딸 아이코가 등교 거부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마사코가 매일 학교에 따라가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 사이사이 궁내청과 미디어 사이에 신경전과 타협이 반복되었고, 미디어에 의한 미치코 배싱, 궁내청 배싱, 마사코 배싱이 얽혔다.

다른 한편, 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 문제가 아이코의 탄생과 마사코의 건강 문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고이즈미 총리는 여성의 천황직 계승을 인정하는 황실전범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추진했다. 이 개정안은 황실 구성원들을 비롯해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의를 불러 일으켰고, 자민당 내 일부 정치가들로부터도 강력한 반발을 샀다. 고이즈미는 여전히 개정안 제출을 강행할 자세를 보였지만 2006년 2월 황태자의 동생 후

5 마틴 프리츠·요코 코바야시, 조희진 옮김, 『마사코: 일본 왕실에 갇힌 나비』, 눈과 마음, 2005, 142쪽.

미히토 부부가 셋째를 임신했다는 뉴스와 함께 개정 시도는 주춤해졌고, 같은 해 9월 아들이 태어나며 일단 중지되었다.

이렇게 볼 때 나름대로 “헤이세이기 황실 붐”을 일으켰던 황태자의 결혼 이후 황태자비로서 마사코의 황실 생활은 부적응과 시련으로 점철된 셈이다. 마사코에 동정을 표하고 현 황실의 제도적 개선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황실 내의 따돌림과 고립, 그리고 궁내청과 황실의 시대착오적 관행에서 마사코의 부적응의 원인을 찾는다. 물론 현 천황제를 지지하는 보수파들의 의견은 전혀 다르다. 이들은 마사코의 ‘자질’에 대해 무자비할 만큼 냉혹한 평가를 내린다. 보수파들에게 마사코는 처음부터 탐탁한 후보가 아니었다. 풍부한 해외 경험이나 화려한 학력과 경력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였다. 그런 요소들이 함의하는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여성 이미지는 전통을 중시하는 황실에 별로 달가운 자질이 아닐 뿐더러 황태자보다 황태자비를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갖게 만들었다. 실제 1993년 1월의 약혼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황태자가 9분 9초를 발언한 것에 비해 마사코가 28초 더 긴 9분 37초 발언을 했다는 비난도 있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후계자 출산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 마사코는 “결혼 당시 이미 나이가 29살에, 형제가 여자만 세 명이었고, 어머니도 무남독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후계자를 얻을 확률이 높았다고는 할 수 없었”<sup>6</sup>던 후보라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결혼이 확정된 후 궁내청은 “신부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후손을 보기 위해 하루라도 허비하지 않기 위해”<sup>7</sup> 황태자비 교육기간을 통상보다 줄여가며 결혼식을 서둘렀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보수파들에게, 아이 낳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공무에 힘을 쏟고 싶다는 마사코의 생각은 본분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로 다가왔다. 결혼 후 부적응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는 제멋대로의 성격 때문, 혹은 애초 부적격한 사람이었기 때문

6 八幡和郎, 『妃殿下の研究』, 幻冬舎, 2012, 57쪽.

7 마틴 프리츠·요코 코바야시, 『마사코: 일본 왕실에 갇힌 나비』, 80쪽.

이었다. 한마디로 황실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선택”이었고, 마사코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향과 황실에서의 향후 역할에 대한 이해 없이 황실 행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대담한 일”<sup>8</sup>을 했다는 것이다.

역사상 군주제는 거의 대부분 남성 군주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그런 제도 속에서 여성들은 권력의 주체보다는 객체, 혹은 권력을 구축하고 행사하는 데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sup>9</sup> 그런 까닭에 군주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왕조와 왕궁은 여러 가지로 명백한 양성불평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젠더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남성들의 권력 게임에 여성이 얼마나/어떻게 희생당하고, 조종당하고, 이용당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들은 어떻게 (주로 비공식적인) 권력을 획득하고 발휘했는가? 남성이 핵심이 되는 왕조에서 여성 구성원에게 부과된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권력의 절대 정점에 위치한 군주와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왕궁 내 여성 혹은 남성 구성원들의 위계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떤 특징을 갖는가? 그렇다면 군주의 역할이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니라 상징으로 축소되고 그 상징 기능의 수행에 황실의 여성 구성원이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 현대 사회에서 왕정이 제기하는 젠더 문제는 어떻게 발현되고 있을까?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일본적 양상은 어떠한가?

이 글에서는 위에 기술된 황태자비의 결혼생활을 출발점으로 삼아 일본 천황제에 내포된 젠더 문제를 조망함으로써 마사코 개인의 시련을 맥락화하고, 현대 일본사회에서 천황제의 위상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마사코의 시련을 통해 천황제를 조망하는 것은 천황제도가 고수해 온 강고한 남성 중심주의를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천황제 ‘위기’의 한 중요한 핵심을 고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일본 천황제를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야와타 가즈오와 같은 보수계 논자들은 현재 일본 황실의 위기로 황태자비의 적응 문제, 천황제 계승 위기, 아이코 공주의 불안한 학교 생활, 황

8 八幡和郎, 『妃殿下の研究』.

9 Anne Walthall, *Servants of the Dynasty: Palace Women in World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태자의 가족 우선 태도, 공무 담당자 부족 문제, 해외에 마이너스 이미지 발신 등을 꼽고 있다.<sup>10</sup> 그러나 전후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천황제 위기의 핵심은 황실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하락과 천황제의 존속 자체에 대한 질문과 비판의 목소리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장·단기적 위기는 일본 천황제에 내포된 젠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2. 제도적 몸과 자연적 몸, 역할과 인격 사이

인류학자 리브라는 일본 화족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 귀족층은 자연적 성향과 문화적 통제 사이의 간격을 아주 넓게 유지하는 사람들, 즉 자연적 충동을 억제하고 문화적 예의 규범을 잘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라 지적한 바 있다.<sup>11</sup> 귀족층은 문화와 자연, 혹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자연’을 공중의 시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천황가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문명화’의 정점에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체로 ‘문화’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릇 황족은 “좋고 싫음을 내색하지 않고, 각듯한 예의를 갖추고, 상냥한 태도를 취해 국민들을 우아하게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다.<sup>12</sup> 일본문화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포장의 문화”<sup>13</sup>를 아주 잘 체현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무대의 전면부와 후면부의 이중구조,<sup>14</sup> 혹은 오모테(表)와 오쿠(奥)의 분리구조 속에서 황족은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것을 관객들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10 八幡和郎, 『妃殿下の研究』.

11 Takie Sugiyama Lebra, *Above the Clouds: Status Culture of the Modern Japanese Nobility*, Berkeley an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12 八幡和郎, 『妃殿下の研究』, 74쪽.

13 Joy Hendry, *Wrapping Culture: Politeness, Presentation and Power in Japan and Other Societi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14 Erving Goffman,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Gaden City: Doubleday, 1959.

나아가 황족, 특히 천황은 그 신체 자체가 이중적이다. 그는 ‘자연적 신체’(body natural)와 ‘정치적 신체’(body political)라는 두 신체를 가지고 있으며<sup>15</sup> 이 양자는 서로 분리되어 조심스럽게 배치·관리되어야 한다. 정치적 신체는 끊임없이 전시되는 반면 자연적 신체는 깊은 궁중 속에 감추어져 있다. 특히 천황제라는 ‘제도적 신체’(institutional body)를 기준으로 볼 때 황족의 자연적 신체는 그 제도적 신체를 매끈하게 유지해 나가는 비가시적인 하나의 역할에 불과하다. 천황제를 지탱하는 종교학적 해석에 따르면 개별 천황의 신체는 죽고 사는 것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들의 신체에는 만세일계를 통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즉 영원불변한 ‘천황령’이 깃들었다가 다시 후대 천황에게로 계승된다. 따라서 육체는 바뀔지라도 ‘천황령’이 일단 깃들게 되면 동일한 천황이 된다.<sup>16</sup> 제도적 신체로서 천황의 몸은 오직 하나인 것이며, 개별 천황은 “그 만세일계인 계통의 한 시기를 담당”<sup>17</sup>할 뿐이다. 이 논리에서는 ‘자연인’은 부정되며, 개성이나 인격 등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황실에서 천황의 여자는 기본적으로 ‘빌려온 자궁’으로, 남계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만세일계의 황통”을 이어주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즉, 그녀들은 남계 남성으로만 이어지는 가계(家系)에서 여성이 부여받는 재생산자(reproducer)로서의 역할의 전형이다. 또한 메이지 이전에는 천황의 ‘정치’가 곧 황후직에 오르는 것도 아니었다. 헤이안 시대의 경우 그 역할에 잘 부합하는 사람이 있으면 “황후로 세우는”[后]식이었고 에도 시대에는 황후란 존재하지 않았다.<sup>18</sup> 황후란 대부분 사후에 부여되는 직위로, 대개는 천황직을 이어받은 후계자의 어머니였다. 메이지유신 이후 천황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천황의 ‘정실’을 황후로 책봉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메이지 황후는 이 제도에 의해 황후가 된 최초의 경우였다. 후계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장치인 측실제도도 다이쇼 천황 때 와서야 폐지되어 천황도 일부

15 Lebra, *Above the Clouds*.

16 折口信夫, 『大嘗祭の本義』, 1928. 남근우, 「다이조사이(大嘗祭)의 구성원리」, 아시아문화연구소 역음, 『천황과 일본문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4에서 재인용.

17 스즈키 마사유키, 류교열 옮김,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8, 184쪽.

18 八幡和郎, 『妃殿下の研究』, 142쪽.

일처제를 따르게 되었다.<sup>19</sup> 실제 메이지 천황(재위기간: 1867~1912)을 비롯해 그 윗대 고메이(孝明) 천황(재위: 1846~1867), 다음 대인 다이쇼(大正) 천황(재위: 1912~1926) 모두 ‘측실’의 소생이었다. 다만 메이지 천황이나 다이쇼 천황 모두 형식적으로는 정실(황후)의 아들로 입양되는 절차를 거쳤고, 이에 따라 황후는 천황직 계승자의 어머니라는 논리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황후’라는 직위는 천황의 배우자라기보다는 그의 후계자와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지위였던 셈이다.

이처럼 근대 이후 일부일처제로의 전환 등 천황의 혼인과 관련된 관행이 점차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랑이 전제된’ 부부 중심의 혼인과는 거리가 멀었다. 천황의 혼인은 신성한 제도에 대한 의무와 결부되어 있었고 그 의무의 핵심은 후계자 확보였다. 실제로 메이지 천황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다이쇼 천황은 매우 허약해서 황실이 특별히 신경 써서 ‘건강한’ 배우자를 간택했고, 이 부부는 히로히토를 포함해 네 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 이후 쇼와(昭和) 천황(재위: 1926~1989), 헤이세이(平成) 천황(재위: 1989~ ) 모두 아들 낳는 데 성공함으로써 근대적 일부일처제에 잠재된 후계자 확보 관련 ‘위기’가 불거질 계기가 없었다.

천황제라는 제도적 몸을 뒷받침해 온 또 다른 논리는 “고귀한 혈통”[貴種性]이라는 믿음이다. 천황을 위시한 황족은 일반인과 구분되는 고귀한 존재로, 그 고귀함은 만세일계로 이어져왔다는 신성함에 근거한다. 이 귀종성 역시 남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천황직 후계를 입양해야 할 경우 일반 서민들의 관행과는 달리 혈연자로 제한했고, 역사상 존재했던 여덟 명의 여제(女帝)도 미혼이거나 미망인 등 독신에 국한시켜 천황직이 여계로 계승될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즉, 역사상 존재했던 여제는 천황으로서의 권력의 크기와 별도로 계보 관계만으로 볼 때는 남계를 이어주는 중계적 존재였던 셈이다. 천황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범위 역시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대로 화족

19 메이지 천황의 경우 10여 명에 달하는 ‘측실’이 있었고 그런 복수의 관계를 통해 15명에 달하는 자녀를 보았다.

(華族)이나 황족 간의 혼인이 반복되었다. 이는 근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여서 메이지, 다이쇼 천황은 물론이고 히로히토와 그 아들들도, 현 천황인 아키히토를 제외하고는 소위 다섯 섭가(攝家)나 황족 가문을 중심으로 일본의 최고 ‘명문’ 집안의 딸들과 혼인했다.<sup>20</sup> “테니스 코트의 사랑”,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으로 회자되며 세간의 관심을 크게 집중시켰던 아키히토와 ‘평민’ 미치코의 결혼이 위치했던 맥락이다. 그간의 황실 혼맥을 고려하면 현 헤이세이 천황의 결혼은 말 그대로 엄청난 신분 차이를 뛰어넘은 것이었다. 실제 미치코가 최초의 평민 출신으로 황실에 혼입하게 되었을 때 황족 출신인 쇼와 황후는 며느리의 출신을 문제 삼아 반대를 했고, 미치코의 혼인 후에도 황실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시집살이를 많이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쇼와 천황 히로히토 부부는 단 한번도 미치코의 친정 부모와 식사를 나누는 적이 없으며, 미치코의 공식 약혼식에도 부모들은 참석하지 못했다. 마사코는 미치코와 미치코의 둘째 며느리인 기코에 이어 ‘일반인’으로 황실에 혼입한 세 번째 여성이다.

황태자비의 자격으로서 ‘고귀한 피’에 대한 금기는 이미 미치코에 의해 깨어진 상태였지만 남성 후계자를 낳아 천황가의 제도적 몸을 잇게 해야 하는 역할은 마사코에게도 여전히 엄중하게 요구되었다. 처음부터 보수 우파들이 황태자비로 원한 자질은 재생산 능력이 높은 몸과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높은 몸이었다. 사실 젊고 건강하고 유전적으로 우월한, 한마디로 우수한 재생산 능력은 어디서나 황태자비 간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런 조건에 비해 학력과 경력은 부차적이거나 과도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다. 따라서 보수파들은 마사코가 만 30살에 가까운 나이에

20 다섯 섭가란 헤이안 시대 이후 섭정과 관백의 지위에 올라 천황을 대신해 실질적인 통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집안으로 대대로 황후를 내었다. 고노에(近衛), 규조(九條), 이치조(一條), 니조(二條), 다카쓰카사(鷹司) 가문이 그 다섯이다. 메이지 황후는 이치조 가, 다이쇼 황후는 규조 가의 딸이었으며 쇼와 황후는 내친왕, 즉 황족이었다. 메이지 초기에 제정된 구 황실전범은 황족의 혼인 범위로 “동족 또는 천황의 뜻에 의해 특별히 인허된 화족에 한한다.”(39조)라고 제한함으로써 천황가의 족내혼(endogamy) 범위를 제도적으로 제한하였고, 실제로 이 규정에 위배되는 영친왕과 일본 황족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결혼 문제는 황실전범 증보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했다.

가계상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sup>21</sup> 이유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당연한 것이지만 황태자의 재생산 능력은 질문될 수 없었다. 결혼을 주저하는 마사코에 대한 회유책으로 ‘황실 외교’ 역할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결혼 후에는 궁내청과 황실의 압력에 의해 해외방문이 번번이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이라는 ‘목적 실천’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당치 않다는 이유였다.

이렇게 볼 때 마사코의 시련이 드러낸 것은 천황제도가 기반하고 있는 자연적 몸의 문제다. 천황이 고귀한 존재로서 자연적인 몸을 감추고 제도적 몸을 아무리 우아하게 배치하더라도 결국 제도로서의 천황제를 재생산하기 위해선 그 구성원의 자연적 몸에 의존해야 한다는 딜레마를 드러낸 것이다. 결국 마사코의 시련과 위기의 핵심엔 남계 왕조시대의 논리가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 논리에서는 황태자비는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황통을 이어갈 왕자를 낳는 하나의 도구”<sup>22</sup>로, 전근대적 왕조시대와 마찬가지로 군주의 남계 혈통을 이어주는 ‘빌려온 자궁’의 역할로 존재한다. 그러나 천황제라는 제도적 몸을 재생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황태자비 역할은 근대 이후 새롭게 주체성과 개인성을 확보한 여성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며, 실제 황태자 나루히토가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 겪은 오랜 난항은 현대 일본사회에서 천황제가 위치한 사회적 맥락의 변화를 잘 반영한다.

전후 일본사회가 황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열린 황실’과 ‘밝은 황실’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황실의 신체를 자연화하고 탈신성화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황실 안팎을 가르는 장애를 제거하여 황실 구성원들을 공중에게 좀 더 가시적으로 하고 접근 가능케 하라는 것이다.<sup>23</sup> 물론 보수 진영은 이런 방향의 변화는 결국 천황에 대한 국민들의

21 이 근거로 보수파들은 마사코 형제가 마사코와 쌍둥이 여동생을 합쳐 딸만 셋이고 어머니가 외동딸이라는 점을 든다.

22 박진우, 「일본 내셔널리즘과 천황제」, 박진우 편저, 『21세기 천황제와 일본』, 논형, 2006, 38쪽.

23 Takie Sugiyama Lebra, “Self and Other in Esteemed Status: The Changing Culture of the Japanese Royalty from Showa to Heisei”,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3(2), 1997.

존경과 경외감을 상실시킬 거라며 강하게 저항한다. 전래의 천황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천황은 여전히 신도(神道)의 최고 제사장이며 ‘신성’(神性)을 유지하고 있는 존재이다. 패전 후 천황의 ‘인간 선언’과 함께 황실의 새로운 방향으로 ‘열린 황실’이 제시되었지만 이는 자칫 황실의 신비주의적인 측면을 와해시키고 그 존재의 정당성마저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천황은 여전히 “구름 위”에 있어야 하며 세상의 논리와 관행에 의해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에서 보면 최고 학력에 경쟁력 있는 커리어를 구축해 온 마사코는 너무 많이 ‘오염’된 인물이었다. 마사코를 비판하는 보수파들이 마사코와 비교해 황후 미치코와 기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두 사람 역시 평민 출신이었지만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을 했고 “사회생활을 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마사코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드러내보인 것은 천황제도가 부정해 온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인 셈이다. 임신할 수 없는(하기 힘든) 몸, 아픈 몸, 개인적 불만, 사적인 희망과 요구 등 지극히 인간적이고 개성적인 것들이지만 고도의 자제와 포장을 덕목으로 하는 황실 코드로 봤을 때는 모두 부적절한 모습이다. 마사코가 ‘몸’으로 겪어온 고통은 우아하고 매끈하게 유지·재생산되어야 할 제도적 몸으로서 황실이, “구름 위의 존재”로서의 신비한 외양 만들기에다 불구하고 결국 다른 평범한 개체들처럼 자연적 몸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주었다는 점에서 우과들에게 곤혹스러운 불편함으로 다가왔다. 특히 황위 계승자를 출산하는 데 겪은 어려움과 궁극적인 실패는 천황제라고 하는 고귀한 ‘문화’가 결국은 ‘자연’(의 불확실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드러내보였다는 점에서 ‘위험한’ 것이기도 하다. 인류학자 더글라스(Mary Douglas)가 지적한 것처럼 문화의 경계를 와해시키는 것은 곧 ‘위험’이며, 다양한 금기는 그러한 위험을 차단하고 경계를 확고히 하려는 문화적 장치다.<sup>24</sup>

황태자비로서 마사코의 정체성(identity)을 규정한 절대적인 조건은 여성

24 메리 더글라스, 유제분·이훈상 옮김, 『순수와 위험』, 현대미학사, 1997.

의 생물학이었다. ‘여성의 근대’가, 여성의 정체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일차적으로 정의해 온 오랜 역사를 극복하고 생물학적 몸의 제약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모습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체를 구축하려는 노력이었다면, 21세기 초두 마사코의 시련은 너무나 익숙하고 상투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증상이어서 오히려 위화감을 불러일으킨다. 마사코의 뛰어난 사회적 성취를 흡수해 버리는 생물학적 구속성은 여성과 관련된 그간의 모든 시대적 변화를 부정해 버리기 때문이다.

### 3. 황실의 표상: 가족의 이상과 새로운 젠더 관계

폐전 후, 천황의 위상이 신성한 절대군주에서 연성(soft) 상징천황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제를 뒷받침해 왔던 강성(hardcore) 가부장제는 큰 흔들림 없이 고수되었다. 천황직을 비롯한 황족의 지위는 남계의 남성으로만 계승되며, 천황의 후면부에 머물러야 하는 황후가 표상하는 것은 부부 중심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이라는, 헌법에 의해서도 보장받게 된 전후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남성 천황을 정점으로 그와의 계보적 거리에 의해 규정되는 천황가의 위계적 관계 역시 전후 일본 가족이 거쳐 온 급격한 변화들과 무관히 여전히 메이지 민법의 가부장적 이에(家)제도를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실제 메이지기 천황제의 근간이 된 구황실전범이 규정하는 천황은 이에적 질서의 모범적 체현자였다. 남계 장자 상속, 남녀 차별적 권리와 의무, 가장에 대한 순종, 가장의 강력한 통제와 감독 권한, 가산의 유지와 조상의 유혼 계승 등에 기초한 이에적 질서 구축 과정에서 황실은 전형적인 ‘이에로’, 천황은 이상적인 ‘가장’으로 부각되었다. 살펴보았듯이 황실 안에서 단혼제와 동반자와의 결합으로서 혼인이라는 개념이 자리한 것도 극히 최근의 역사다.

큰 틀에서는 황후/예비 황후의 모습은 당대 일본사회의 지향(정치적 분위기, 가족제도, 젠더 관계 등)과 조응해서 구축되어 왔다. 메이지 황후의 경우 근

대 일본의 국민국가 만들기 과정이 기초하고 있던 가부장제적 가족제도의 모범적인 체현체로서 그 역할과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황후는 모범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sup>25</sup> 보다 정확히 말하면 메이지 황후 하루코는 근대적 여성상의 표상이자 양치현모라는 역할의 이상적인 구현자였다. 하루코는 양장을 입고 공식행사에 남편과 함께 참석했으며 여성교육과 사회 구휼 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동시에 그녀는 ‘가족국가 일본’의 가부장인 천황의 배우자로서 이상적인 양치현모상을 구현했다. 양치현모 역할은 근대 일본이 부상하는 부르주아 계층의 여성들에게 부여한 새로운 역할이자 사명이었다. 청일전쟁 이후 강화되는 내셔널리즘과 근대화의 열망 속에 가정은 강력한 근대국가로 거듭나야 하는 일본의 든든한 초석이 되어야 했으며, 이 가정영역을 전담하는 역할은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가장 잘 수행할 것으로 가정되었다. 다시 말해 근대일본의 양치현모는 “이 말이 통상 이미지화하는 ‘보수적’, ‘전통적’ 여성상과는 다른, 실은 근대국가에 어울리는 국민을 낳고 기르는, 교육을 겸비한 여성”<sup>26</sup>에게 부여된 새로운 역할이었다. 이렇게 근대 일본이 여성에 대한 새로운 담론과 제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황후를 비롯한 황실 여성들은 “여성다운 미덕의 화신이 되어야 했”<sup>27</sup>으며 황실의 결혼은 이상적인 여성상을 그려내며 일본 가족을 재정의하는 데 기여했다.

패전 후 개혁 국면에서 이에제도는 봉건성의 온상으로 강하게 비판을 받으며 부정되었고, ‘평화헌법’의 정신에 근거한 새로운 민법(1946년)은 남계 직계가족으로서 이에제도의 법적 근거를 제거했다. 이제 가족은 남녀평등과 부부의 동등한 권리에 기초한 핵가족으로 ‘현대화’되었다. 가족과 관련된 일본인들의 의식이 실질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하던 시점에 거행된 황태자 아키히토와 쇼다 미치코의 결혼식(1959년)이 대대적인 ‘밋치 붐’을 불

25 와카쿠와 미도리, 건국대학교 대학원 일본문화언어학과 옮김, 『황후의 초상』, 소명출판, 2007.

26 牟田和恵, 「新しい女・モガ・良妻賢母: 近代日本の女性像のコンフィギュレーション」, 伊藤るり 外編, 『モダンガールと殖民地的近代: 東アジアにおける帝国・資本・ジェンダー』, 岩波書店, 2010, 163쪽.

27 다카시 후지타니, 한석정 옮김, 『화려한 군주: 근대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 이산, 2003, 252쪽.

러일으키며 황실에 대한 국민적 환호와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에제도가 폐기되고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기초한 가족제도가 공포되었던 점과 풍요롭고 활기찬 새로운 일본사회에 대한 대중적 열망이 확산되었던 데에 기초한다. 황실의 오랜 전통을 깨고 아이들을 한 지붕 아래서 키우며 직접 수유를 하고 요리를 해주는 미치코와 정원의 흙을 함께 만지며 아이들과 놀아주는 미래의 천황의 모습은 당대 서민들이 지향했던 ‘마이홈주의’와 아주 잘 공명했다.<sup>28</sup>

황실의 적극적인 홍보와 영향력을 더해가던 대중미디어의 중재를 통해 미치코는 중산층 어머니이자 주부의 완벽한 모델로 표상되었다. 젊은 황태자 부부에 대한 국민들의 환호는 이들이 황태자 부부의 모습에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현대적이고 이상적인 가족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부부가 연행(演行, perform)하는 핵가족적 친밀성과 그 안에서 여성이 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분명 가부장이 이끄는 세대를 초월한 이에제도와 대조를 보이며 일반 대중들에게 호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조용하고, 또 그런 변화를 선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만큼은 황태자비 미치코는 행운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미치코의 새로운 시도와 황실 가족의 변화된 모습에 비판을 가하고 황실의 존재 이유를 전통과 영원불변함에서 찾고자 하는 세력은 존재했지만 말이다.

한편 남녀공동참획(参画)사회 건설이 국정과제로 제안되고 여성들의 커리어 지향이 당연시되던 1990년대 초두, “최초의 커리어 우먼 황태자비”의 등장은 분명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변화에 저항이 큰 황실에도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기도 하였다. 실제 1993년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마사코는 “매력적인 일하는 여성”의 ‘넘버 원’으로 뽑혔다.<sup>29</sup> 다른 한편에서는 마사코가 커리어를 포기하고 황실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페미니스트들

28 황달기, 「황족의 결혼」, 아시아문화연구소 엮음, 『천황과 일본문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4.

29 Lebra, “Self and the Other in Esteemed Status”, 285쪽.

의 비판의 목소리<sup>30</sup>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복잡한 심경도 피력되었다.<sup>31</sup> 미치코가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것으로 비쳤다면 마사코는 오히려 그로부터 후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가속화된 황실의 위기를 고민하는 보수파들에게는 마사코의 등장을 남녀평등 식의 ‘일반 세계’의 논리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가당치 않은 것이었다. 이들에게 황실은 세상의 변화와는 무관한 별개의 세계이며 ‘어설픈’ 일반인들의 논리를 적용시킬 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미치코의 결혼 때와 비교할 때 마사코가 표상하는 것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었으며, 실제 ‘마사코 붐’은 ‘미치 붐’과는 비교할 만한 것이 못되었다.<sup>32</sup>

천황제가 내포한 이에적 관행은 호적제도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전후의 개정 민법에 의해 일반인 여성이 결혼할 경우는 결혼 전 호적으로부터 제적되어 부부가 새로운 호적을 만들게 된다. 부부동성제에 따라 새로 만드는 호적은 필두자(筆頭子)의 성으로 통일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남편이 필두자가 되어 호적을 만들고 있다. 반면 황족과 결혼을 할 경우엔 황실의 족보라 할 수 있는 ‘황통보’(皇統譜)에 등록이 되며 결혼 전 주민기본대장이 없어지고 성도 없어져 경칭으로 불리게 된다.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선거권, 피선거권도 없어진다. 전후 개혁에 의해 이에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적의 편제가 세대를 초월하여 영속하는 출계 집단의 계보를 의미하는 것에서 부부 중심의 핵가족을 기재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천황가의 황

30 Akiko Fukami, "Not All Ready to Raise a Toast to Royal Nuptials", *Japan Times*, April 8, 1993.

31 예를 들어 약혼 발표 직후나 결혼식 직후에 독자들이 일간지에 투고한 다음과 같은 소회를 들 수 있다: “황태자비 내정 뉴스가 전해진 밤, 일말의 쓸쓸함을 느꼈다. ‘축하한다’는 심정에 거정은 없다. 그러나 꽃다발을 건네주며 복잡한 심경을 숨길 수 없었던, 회사 동기 여성의 결혼퇴직 날과 비슷한 심정이 되었다. 오와다 마사코 씨와 동년배인 우리들은 남녀고용기회균등법(1986)의 적용을 받은 1기생이다. 균등법을 계기로 기업은 여성에게 머뭇거리며 문호를 열었고 여성들은 희망에 차 그 문으로 들어갔다. 이 1기생들은 지금 일로, 사생활로 여러모로 흔들리고 있다. 직장에서는 관리직 말단에 올라가기 위한 최초의 승진 기회를 맞고 있는 반면, 결혼과 출산 적령기라는 말도 듣고 있다. 선택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 남성사회라 말해지는 기업조직 안에서 손으로 더듬어가며 한결음씩 걸어온 것이 우리 세대다. 오와다 씨도 분명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기업사회가 우리들에게 미지의 세계였던 것처럼 오와다 씨에게 황실이라는 사회도 아직 미지의 세계일 것이다. 남성보다 반 보 떨어져 걸어야 한다는 식의, 전통의 힘이 무거운 세계에 들어가 향후 어떤 활약을 보여 줄까. 일말의 쓸쓸함을 느끼면서도 ‘분발하세요’라고 응원을 보내고 싶다”(『朝日新聞』, 1993. 1. 13).

32 황달기, 「황족의 결혼」.

통보는 ‘만세일계’의 이에로서 천황가의 계보를 담고 있다.

전통적인 이에제도에서 여성이 권력과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역할 중 하나는 오카미(女將)다. 가업이 있는 이에의 (안)주인으로서 오카미는 가업의 영속과 번영이라는 무거운 의무를 지는 한편 가업의 운영과 식솔들에 대해 커다란 권한을 갖는다. 일부 논자들은 천황가에 대해 “특별한 가업을 유지 계승해 온 이에”로, 황후/황태자비 자리를 “일종의 오카미”로 비유하며 마사코의 태도를 비난하기도 한다. 가업이 있는 가정의 후계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아내가 되는 것과 동시에 가업을 담당하고 그에 부합하는 지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경우 이에라는 조직과 가업의 영속이 개인의 개성이나 인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3</sup> 오카미로서 황태자비의 중요한 역할은 ‘공무’라는 형태로 수행된다. 마사코에 대한 비난과 우려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황태자비로서 공무에 크게 적극적이지 않으며 건강문제가 불거진 이후로는 실제 거의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천황 부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황실의 대외 이미지도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공주 아이코의 등교거부가 장기화되자 마사코가 매일 아이를 따라 등교를 한다는 가 공무를 거의 멈춘 상황에서 아이 학교 관련 다른 일에 적극 나서는 것에 대해 비난이 가중된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sup>34</sup>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핵가족만 챙긴다는 것이다.

황태자 역시 사적 핵가족을 더 중시한다는 우려의 시선을 받아야 했다. 나루히토는 약혼 발표 기자회견에서 “마사코를 평생 온 힘을 다해 지켜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마사코와의 결혼을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남녀의 결합이라는 틀로 위치지웠고, 혼인 후에도 황실의 오랜 관행을 깨면서 여러 비난과 비판에 맞서 배우자로서 황태자비에 대한 지지를 표방하곤 했다. 그런 모습의 절정이 2004년 5월 기자회견에서의 ‘마사코 인격 부정’ 발언이었

33 八幡和郎, 『妃殿下の研究』.

34 예컨대 이런 비난까지 있다: “병 때문에 회사를 쉬고 있는 처지에 매일 아이의 학교에 따라가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락되기 힘들다. 그런 경우엔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상식이다”(八幡和郎, 『妃殿下の研究』, 78쪽).



〈그림 2〉 공주 아이코와 황태자 부부

다. 보수파들은 즉각 “적절치 못한” 처신을 지적했고, 황태자비뿐만 아니라 황태자까지도 공무보다는 “가족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듯” 보인다고 비난을 했다. 황태자 부부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분위기 속에 일부 미디어를 통해 “황태자 퇴위 가능성” 등이 언급되더니 급기야 2013년 3월 전 국제일본문화센터 소장이자 종교학자인 아마오리 데쓰오(山折哲雄)가 “황태자 전하, 퇴위하십시오”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글을 활자화하기에 이른다.<sup>35</sup> 이 글은 상징천황제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리뷰와 함께 “사적(私的) 가족에 기울어진” 황태자에게 퇴위하여 마사코 비, 아이코 공주와 함께 교토로 가서 마사코의 치료도 하며 단란하고 평화로운 가족생활을 꾸려갈 것을, 즉 가족 중심의 ‘제2의 인생’을 선택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것이 2000년간 유지해 온 ‘상징가족’과 ‘근대가족’ 간의 균형을 되찾아 ‘천황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길이 될 거라는 주장이다.<sup>36</sup>

35 山折哲雄, 「皇太子殿下, ご退位なさいませ」, 『新潮 45』 3月号, 2013.

36 아마오리의 ‘퇴위론’이 실린 〈新潮 45〉는 신조사가 발간하는 월간지로 〈週刊新潮〉에 비해 좀 더 대중성이 강하다. 우익 성향의 신조사가 지명도 높은 학자의 필을 빌어 ‘퇴위론’을 활자화한 것은 천황제 옹호론자들의 황태자 폐리의 연장이라 볼 수도 있고, 최소한 황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자극하려는 의도라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천황제 옹호론자들의 입장에서는 황실이 국민들에게 그지 잊혀지는 것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천황제와 관련된 일련의 젠더 이슈에 대해 일본

이렇게 볼 때 현대의 상징천황제가 내포한 젠더 문제는 결국 일본의 근현대 가족제도가 내포한 젠더 관계와 긴밀히 연결된 것이었다. 메이지유신 후 새롭게 제도화된 가부장적 이에제도는 근대적 국민국가 만들기 과정을 통해 일본사회에 표준화되어 갔고, 천황가는 부계제, 장자 승계, 가부장의 절대적 권한에 기초한 일본 근대 가족제도의 모범이 되었다. 나아가 천황은 ‘가족국가 일본’을 앞에서 이끄는 전 국민의 ‘가장’이 되었다. 패전 이후 이에제도가 폐기되고 가족구성원 간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기초한 가족제도가 공포되었을 때 그동안 천황 뒤에서 그림자로 머물렀던 황후의 위상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되었다. 확실히 쇼와 황후는 패전 후 과거에 비해 가시성이 확연히 증가했고, 미치코는 살펴본 대로 새로운 핵가족의 이상을 ‘연행’하면서 황실의 이미지를 훨씬 친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전후 개혁의 일환으로 구 황실전범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제도는 여전히 명백하게 남녀차별적이다. 천황직은 남성만 계승할 수 있고 배우자 관계도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며, 남계로만 연결되는 계보 관계로 인해 일반인과 결혼한 공주는 황족 신분이 박탈된다. 즉, 천황가만이 여전히 메이지 초기에 제도화된 가부장적 이에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마사코가 희망한 것은 현대 일본의 ‘정상’ 핵가족 생활과 그 속에서의 지위와 역할이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런 ‘사적’ 희망이 받아들여지기에는 황실 생활은 천황제라는 틀 속에서 각각의 지위에 할당된 역할과 의무가 훨씬 우선되는 곳인 듯하다.

페미니스트들이 (사회비평이나 학술논문의 차원 모두에서)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무관심 전략’이라는 답을 들은 적이 있다.

#### 4. 여제는 가능할까?:

##### ‘여제 논쟁’과 여론조사를 통해 본 여성 천황의 과거와 미래

근년에 일본 황실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거리로 부상했던 것은 소위 ‘여제(女帝) 논쟁’이었다. 힘들게 결혼한 나루히토 부부 사이에 아이 탄생이 늦어지면서 황위 계승자 확보와 관련된 우려감이 표명되었고, 2001년 12월 결혼 후 8년 만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딸임이 밝혀지면서 ‘여제의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부상했다.<sup>37</sup> 이제 첫 아이가 태어났으니 둘째, 셋째의 가능성도 생긴 것이고 그 중 남아가 태어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당시 상황은 그런 불확실성에 힘이 실리기에는 ‘여유’가 없었다. 우선 황태자 부부의 나이가 적지 않았고 동생 후미히토 부부도 딸만 둘이었다. 더 중요하게는 자칫 계승 조건을 충족시킬 황족원이 단절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65년 현 천황의 둘째 아들인 후미히토가 태어난 뒤 아이코를 포함해 황실에 태어난 아홉 명이 모두 딸이었다. 따라서 2000년대 초두 상황은 나루히토, 후미히토까지 황위 계승이 된 후에는 더 이상 후보자가 없었다. 2013년 현재 아키히토 대에 두 명, 그 윗대에 한 명의 남자 황족원이 있지만 당연히 이들은 이미 고령이며, 나머지 여성은 누구도 황위 계승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그림 3〉 참조).

사실 2000년대 초두 여제 논쟁 이전에도 이미 일본 황실에는 오랫동안 남자 수가 부족했다. 남계 계승을 보장하는 장치로 ‘측실제도’가 있었지만<sup>38</sup> 이미 에도시대 후기부터 남계 계승은 겨우겨우 가능한 정도였다. 다이쇼 천황 재위까지 포함한 100여 년 동안 즉위했던 닌코(仁孝: 재위, 1817~1846), 고메이, 메이지, 다이쇼 천황 모두 이전 천황의 유일하게 생존한 아들이자 측실의 아들이었다. 에도 후기에 오면 이전에 비해 측실의 규모가 작아졌고

37 일본에서 ‘여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어서 구 황실전범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커다란 논쟁거리로 대두했다. 2000년대 초두의 여제 논쟁의 자세한 경위와 함의에 대해선 박진우, 「여성·여계천황과 상징천황제」를 참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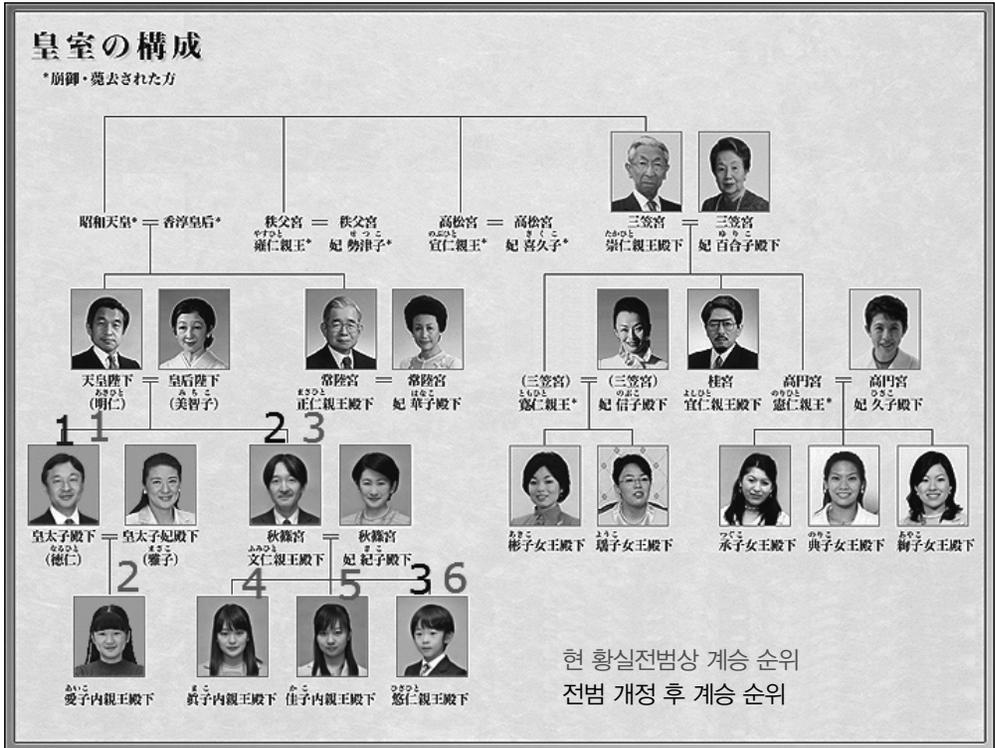
38 所 功, 「〈皇室典範〉と女帝問題の新論点」, 『別冊歴史読本』 24, 新人物往来社, 2002.

근친혼, (의료 목적으로라도) 황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에 대한 금기 등으로 황실의 유아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패전 후에는 연합군 점령 하에 시행된 ‘신적강하’(臣籍降下) 조처에 의해 남성 황족 26명을 포함한 51명이 황족 신분에서 이탈했다. 다이쇼 천황의 직계 자식만 황족 신분을 유지하고 나머지 11개의 방계 황족 가문[宮家]이 황적에서 이탈, 평민이 된 것이다.

현재 천황직 계승의 기본 요건은 우선 일본국 헌법 제2조의 “황위는 세습에 의하고,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승한다.”라는 조항과 황실전범 제1장의 황위 계승 규정이다. 황실전범 제1장 1조는 “황위는 황통에 속하는 남계(男系)의 남자가 계승한다.”로, 9조는 “천황 및 황족은 양자를 들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생물학적으로 이어진’ 남계 남성만이 계승 자격을 갖는다. 2조가 규정한 황위 계승 순서는 황장자 → 황장손 → 기타 황장자의 자손 → 황차자 및 그 자손 → 기타 황자손 → 황형제 및 그 자손 → 황백숙부 및 그 자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여제 논쟁은 곧 <황실전범>(이하 ‘전범’으로 표기함) 개정 여부를 의미했다. 전범 개정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러 쟁점들이 지적되었으나 가장 핵심은 여성에게 계승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었다. 위에 언급한 ‘귀종성’의 믿음에 의해 입양이라는 대안은 더욱 허용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증폭된 위기감을 배경으로 전범 개정파인 당시 수상 고이즈미는 2004년 12월 <황실전범에 관한 유식자회의>라는 전문가 기구를 만들어 여성/여계(女系) 황위 계승에 관한 전범 개정안을 만드는 일에 착수했다. 황족과 구황족, 그리고 보수파들이 여성/여계 황위 계승에 반대 혹은 우려를 표했지만 <유식자회의>는 2005년 11월 “제1자 계승”, “여성/여계 계승”, “여성 궁가(宮家) 설립” 등의 인정을<sup>39</sup>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고이즈미 수상은 이를 바탕으로 전범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39 세 가지 모두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제1자 계승’이란 성별에 상관없이 장녀/남에게 계승 우선권을 주는 것이며, ‘여계 계승’은 모계를 통해 계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계 여성 천황’과 ‘여계 남성 천황’이 가능하다. 과거 8명의 여제는 모두 여계 천황과 무관한, 남계를 이어주는 여성 천황이었다. ‘여성 궁가 설립’은 공주가 혼인을 할 경우 공주를 가장으로 하여 그 배우자와 자녀를 황족으로 편입시켜 황족원의 규모를 늘리자는 것이다.



〈그림 3〉 현재 황족의 남녀 구성과 천황직 계승 순위(〈황실전범〉 개정 전후)

이러한 움직임에 당시 관방장관 아베 신조와 아소 다로 등 보수파 정치가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전범 개정 문제가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번져가는 와중에 2006년 2월 후미히토 부부의 셋째 임신 사실이 발표되었고 전범개정 작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그리고 2006년 9월, 41년 만에 황실에 아들이 태어나면서 개정안 상정 문제는 유보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여제 논쟁’은 일단 중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해결’된 사안이라기보다는 미뤄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살펴보았듯이 남계 남성 계승 위기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 현재 황족의 구성과 〈황실전범〉 개정 여부에 따른 천황직 계승순위는 〈그림 3〉과 같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여성 천황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우선 여론의 추이부터 살펴보자. 교도통신사(共同通信社)와 그 주요 가맹 언론사로

〈표 1〉 여성 천황에 대한 지지도 추이

조사일	1975. 12	1984. 12	1998. 4	2003. 6	2005. 10	2006. 2	2009. 10
여자가 천황이 되어도 좋다	31.9	26.8	49.7	76.0	83.5	71	77
천황은 남자만 되어야 한다	54.7	52.5	30.6	9.6	6.2	13	14
특별히 관심 없다	8.1	18.0	17.5	12.7	9.3		
기타	0.2	0.2	0.4	0.4	0.2		
모르겠다/ 무응답	5.1	2.8	1.8	1.3	0.8	16	1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 2006년과 2009년 결과는 가토(加藤元宣)에서,<sup>40</sup> 나머지 연도의 조사결과는 일본여론조사회의 여론조사 결과임.

구성된 일본여론조사회가 1975년부터 30년간 여성 천황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표 1〉 참조) 여성 천황에 대한 지지도에서 현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2003년 조사에서는 5년 전 결과와 비교해 여성 천황을 지지하는 비율이 49.7%에서 76.0%로 급증한 반면 남성이 천황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0.6%에서 9.6%로 급감하고 있다. 2003년 시점에는 아이코가 태어난 이후 황실의 후계 문제와 관련해 위기감이 증폭되고 마사코의 ‘부적응’에 동정심도 확산되던 시점이었다. 그리고 <유식자회의>가 전범 개정안을 제출하기 직전인 2005년 10월에는 여성 천황에 대한 지지가 80%를 넘고 반대의견은 6% 선으로 떨어지는 등 전체적으로 30년 사이에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이 여론에 의해 탄력을 받았음을, 그리고 고이즈미가 개정안 상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시점에서는 여성 천황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지가 압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부 보수우파들의 강력한 반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언론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도 여성 천황을 용인하는 전범 개정에 찬성을 표하고 있었다.

40 加藤元宣, 「平成の皇室観: '即位20年 皇室に関する意識調査'から」, 『放送研究と調査』2月号, 2010.

이런 변화가 어디까지 사회의 전반적 변화를 반영하고 어디까지 황통 존속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는지 정확히 구분해 내기는 힘들다. 다만 보수우파들 사이에서도 여성 천황에 대한 지지층이 있었다는 점은 여성 천황의 용인이 남녀평등 의식의 단순한 반영만은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무엇보다도 황실의 혈통이 계승되어야 한다”<sup>41</sup>는 절박감이 이들로 하여금 여성에 의한 계승도 ‘용인’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2006년 가을 황실에 아들이 태어나자 여성 천황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하락하고 반대로 남성 천황 지지층이 증가하는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물론 여성 천황에 대한 찬성이 황위 계승에 대한 위기감에서만 나온 것도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일반인들의 지지가 꾸준히 확대된 것은 1999년 2월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안’의 국회 제출 등으로 상징되는 시대적 변화와 황실의 남성중심주의 사이의 간격이 그 어느 때보다 벌어진 때문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여성 천황에 대한 지지가 향후 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대폭 하락하기는 힘들 것이라 예상되는 이유다.

실제로 ‘여제 논쟁’이 본격화된 데에는 아이코의 탄생이 계기가 되었지만 여성 천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제안은 이미 나루히토의 결혼과정에서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1993년 1월 나루히토의 약혼 발표 직후 신문에 투고된 일반인들의 소감에는 황태자의 약혼 자체에 머물지 않고 천황제의 존재 방식 전체를 질문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그리고 “이 참에” 여성도 천황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피력되었다. 예를 들어 35세의 한 남성 회사원은 “약혼이 성사되기까지 이렇게 난항을 겪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황위 계승이 남자만 가능한 것도 이유 중 하나라 생각한다. 반드시 남자를 낳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여성이 이 세상에 있을까. 나아가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약속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본인도 주저하고 부모가 반대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남녀는 평등한 존재이며, 여성의 사회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오와다 마사코가 그 좋은 예다. 황실만

41 박진우, 「여성·여제천황론과 상징천황제」, 11쪽.

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 이 참에 황실전범을 개정하여 여성도 황위 계승이 가능케 하는 것이 어떤가”<sup>42</sup>라고 묻고 있다. 마찬가지로 황태자의 혼례 직후 29세의 주부는 “왜 애초 여성은 황위 계승을 할 수 없는 것일까. ... 국민통합의 상징인 천황이 그런 불평등한 황실전범에 의해 존재하는 이상 일본사회의 ‘후계자는 남자’라는 생각 역시 바뀌기 힘들 것이다. 모든 생명은 남녀 동등하게 존엄하다. 언젠가 태어날 황태자 부부의 아이가 낙담의 소리를 들으며 이 세상을 대면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절대 안 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황실전범이 개정되기를”<sup>43</sup> 희망하고 있다.

여성 천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흔히 천황제의 역사에서 이미 여성천황이 존재했었음을 지적한다. 실제 에도시대 두 명의 여성 천황을 포함해 10대에 걸쳐 여덟 명의 여성 천황이 즉위하였으며, 그 중 몇 명은 강한 통치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천황직 승계 자격에서 여성을 배제한 것도 메이지 헌법에 와서다. 여성 천황을 허용하는 것은 양성평등이란 시대적 가치와도 부합하고 이를 통해 황실을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운 존재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란 의견도 많다. 유럽의 여러 왕실이 여성 승계를 배제하지 않는 점도 여성 천황 지지 논리에 유리하다.

그렇다면 전범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2000년 남계 원칙”이라는 ‘전통’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수파들에 의하면 역사상 존재했던 여성 천황은 위기에 처한 남계 계승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며, 그들의 존재가 천황제의 출계율(descent rule)에 초래한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인들 중 여성 천황과 여계 천황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여계 천황의 허용은 일본 역사상 전례 없는 새로운 변화로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여계 천황을 한 번 인정하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

42 『朝日新聞』, 1993. 1. 8.

43 『朝日新聞』, 1993. 6. 15.

던 황실의 다른 전통과 금기가 계속 와해될 것이고 결국은 천황제 자체가 흔들릴 것이란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남계 전통을 유지할 다른 대안, 예컨대 1947년 ‘신적강하’ 조처로 황족에서 이탈한 구황족의 복권 등을 주장한다. 측실을 부활시켜야 한다거나 황태자가 이혼하고 다른 여성을 찾아야 한다는 좀 더 과격한 소리도 있었다. 반대파들이 불편해 하는 또 다른 것으로 여자 천황의 남편에 대한 대우/예우 문제도 있다. 천황은 가장 높은 지위와 신분이어야 하는데 일본인들의 통념상 ‘남편은 아내의 위’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다. 사실 외부인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점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각적 거부감으로 다가온다. 보수파들이 줄곧 주장해 온 대로 황실은 ‘일반 세상’의 논리나 잣대를 적용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 5. 세속화된 사회 속의 극장국가와 그 주역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설사 왕정이 존속한다 해도 정치와 행정 업무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관료제도에 의해 수행되고 군주에게 남은 것은 의례적 역할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속적인 권력이 제거된 채 ‘극장성’만을 그 기능으로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세속 권력 역시 권력의 정당화나 과시를 위해 ‘의례’를 고안하고 수행하며, 통치의 의례적 연행(performance)은 현대정치에서도 익숙한 풍경이다. 경우에 따라선 이 극장성이 곧 권력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핵심이 되기도 한다.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가 식민화 이전의 발리의 왕권을 ‘극장국가’(theater state)라 부른 것은 통치의 기호론적 속성과 지배의 표현성 그 자체가 곧 질서와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국가의 의례적 실천과 연극적 상연은 곧 정치를 실현하는 방식이다.<sup>44</sup>

44 Clifford Geertz, *Negara: The Theater State in Nineteenth-century Bal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그림 4〉 황실의 일반 하례식/의례화된 일반인 인사 행사

왕권과 극장성이란 맥락에서 볼 때 메이지유신 후 제도화된 근대 천황제는 기어츠가 말하는 극장국가로서 천황제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가는 과정이었다.<sup>45</sup> 연약한 여성적 이미지로 이해되고 있던 천황을 강력한 군주이자 통치자로 세우는 과정은 일련의 주도면밀하게 기획된 연행을 통해서 가능했고, 천황이 주인공이 되는 황실의식과 국가의례는 근대국가 일본의 국민이라는 상상/정치공동체를 창출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근대 천황제 만들기 과정이 일단락되고 천황이 ‘화려한 군주’가 된 이후에도 상징의 시연과 의례는 천황의 권위와 권력을 구성하는 불가분의 요소가 되었다.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징천황제다. 이제 천황과 황실은 극장국가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았지만 세속 권력이 부정된 상태에서 극장성이 발휘할 수 있는 상징적, 정서적 장악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황실 구성원의 잘 연출된 연행은 관중을 사로잡고 그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지만, 극장성(만)을 공식 역할로 부여받은 만큼 황

Press, 1980.

45 물론 후지타니가 명민하게 보여주듯이(다카시 후지타니, 『화려한 군주』) 천황을 둘러싼 메이지 초기의 패전트들이 그 고풍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후 위정자들에 의해 기획되어 체계적으로 유포되어 간 것이란 점에서 메이지 천황제의 극장성은 분명 계보학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기어츠의 극장국가 개념도 일종의 이념형으로 해석할 때 보다 풍부한 분석적 함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족의 일거수일투족은 대중과 미디어의 시선에 무자비하게 노출되며 사생활은 쉽게 스캔들로 변질 수 있다. 또한 유럽 등지의 왕실과 비교해 볼 때 일본 황실은 극장성을 부여받았으며 그 연행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 황실은 엄격한 규칙 하에 움직이며, 주로 ‘전통’과 ‘보수’라는 주제로 연행을 한다. 무엇보다 천황제가 고수해 온 만세일계의 신화 때문이다. 아직도 황실을 감싸고 있는 비의(秘儀), 신비주의, 폐쇄성 등의 이미지는 천황제의 핵심에 존재하는 ‘신성한’ 계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2012년 런던올림픽 개막식에서 영국 여왕이 선보인 극적이고 파격적인 연행을 일본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유다.

황실의 극장성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 장은 황태자의 혼례, 천황의 즉위식, 장례식 등의 황실 통과의례다. 특히 황실이 “전통문화의 구현자”<sup>46</sup> 남아 있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황실의례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이들에게 ‘열린 황실’은 엄청난 위험을 내포한 것이다. 열린 황실이 의미하는 것이 황실을 둘러싼 강고한 금기를 완화시키고 황실 구성원들의 개성과 자유를 좀 더 보장하여 황실을 국민들에게 더 가까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면, 이는 자칫 황실의 권위 상실과 최악의 경우 유럽의 왕실들처럼 황실을 스캔들과 가십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만세일계’에 매달리는 이들에게 황실의 신성성 침해는 용납하기 힘들다.

그러나 현실은 ‘전통문화의 정수’로서의 황실의 극장성도 그 기반이 지극히 취약하다는 점이다. 헤이세이기가 들어 연이어 공연된 황실의례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횡수가 거듭될수록 현격히 감소한 것은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나아가 이러한 의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메시지에 대한 수용에서도 차이와 이견이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헤이세이기가 가장 큰 대중적 관심을 끌었던 황태자 혼례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은 ‘유구한 전통 문화’를 테마로 한 황실의 공연물이 관객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다양한 층위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아사히신문』은 혼례식 바로 다음 날, 독자들의 투

46 八幡和郎, 『妃殿下の研究』, 16쪽.



〈그림 5〉 마사코: 커리어 우먼, 주니히토에 차림, 이세신궁 참배(왼쪽부터)

고로 꾸며지는 「잠시 한때」(ひととき) 코너에 아홉 명의 일반인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sup>47</sup> 21세의 여학생 한 명을 제외한 8명은 20대에서 60대에 걸친 주부들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여덟 명이 마사코를 소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황실이라는 극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시켜 준다. 황태자에 대한 언급은 “두 분”이라는 표현 속에 한 번 등장할 뿐이다. 그 내용도, “주니히토에(十二単)를 입은 마사코 비, 움직이는 게 힘들어 보였다”, “전통적 의식은 나름 흥미로웠으나 젊은 커플에 어울리는, 보다 새로운 형식의 결혼식은 될 수 없었을까. 두 분의 결혼식인데 웬지 궁내청의 결혼식 같은 인상이 들었고 국민들이 따뜻하게 축복해 준다는 느낌은 아니었다”, “주니히토에 모습의 마사코 비. 정말로 외교관을 그만두고 자신의 능력을 황태자비 역할에 쏟겠구나, 이제부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외무성 시절의 마사코 씨는 큰 보폭으로 씩씩하게 걷는 멋진 여성이었는데, 약혼 후에는 시선을 내리깔게 되었고 황실풍의 모자와 의상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텔레비전도 아침부터 같은 것만 보여 줘서 그만 꺼버리고 말았다.” 식의, 신문 편집자의 평처럼 “의외로 냉담한 반응이 많았다”.

‘긍정적’ 평가를 한 세 사람 중 “헤이세이 신데렐라”의 미소를 느꼈다는 의견을 제외한 두 사람은 전체적으로는 양가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를

47 『朝日新聞』, 1993. 6. 10.

테면, “아주 멋있었다. 헤이안 시대의 두루마리 그림을 보는 것 같았다. 다만 행사와는 별도로 궁중의 관례는 매우 까다로운 듯해 손수건 하나 드는 방식을 포함, 일상의 여러 가지에 대해 주변에서 잔소리를 한다고 들었다. 그런 식으로 마사코 비를 속박하지 말고 차라리 마사코 비한테 영어라도 배우는 편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국민적 행사로 일본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좋은 거라고 느꼈다. 엄숙한 종교적 행사도 좋았다. 다만 현 천황의 혼례 때는 황실에 처음으로 서민이 들어가는 점과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보게 되어 정말로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차분하게 지켜보았다. 이미 사전에 예산 규모 등도 보도되었는데 차라리 운젠 지역 같은 피재지에 그 돈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식이어서 의례적 연행에 대한 호감이 반드시 황실 전체의 관행이나 존재 방식에 대한 긍정과 동일한 것은 아님을 확인시켜 준다.

나아가, “눈물을 억지로 삼키는 듯한 마사코 부모의 인터뷰 장면을 보며 남편과 같이 울었다”, “이제 호칭이 마사코 ‘님’(さま)이 되는 걸 보고 역시 먼 존재가 되었다고 느꼈다”, “계엄령에 준하는 삼엄한 경비를 보고 있자니 두려움이 느껴졌다. 전후 48년의 시간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식의 목소리는 가장 고풍스럽고 우아하게 포장된 순간에도 황실의 연행이 각본가들의 의도대로 수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예컨대 황실의 전통의례에서 주니히토에의 극장성은 각별하다. 열두 겹 ‘포장’은 그 겹침과 색조의 미학으로 헤이안기의 화려한 궁중의상의 전통을 표상하는 것처럼 간주되지만, 위의 독자들 소리에서 보듯이 오히려 그 의상을 입은 주인공의 움직임과 개성을 푹푹 싸매어 속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거기에서 유구한 전통을 느끼기보다는 다양한 금기와 제약으로 겹겹이 싸여 있는 황실의 모습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1990년 1월, 그해 11월에 국사(國事)로 예정되어 있던 헤이세이 천황의 즉위식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12%가 “성대하게 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는 “즉위식에는 찬성하나 화려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65%), “별도의 의식은 필요 없다”(5%), “관심 없다”(16%)는 답을 하고



〈그림 6〉 공무에 참석 중인 여성 황족들

있다.<sup>48</sup> 결국 현재 황실의 핵심 역할이 극장성에 있지만 그 중심 주제와 배역의 할당, 공연 레퍼토리와 공연 방식, 각본의 창조와 각색 가능성 등에선 많은 도전과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황실의 극장성과 관련해 주목할 점 하나는 여성 황족원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는 점이다. 쇼와 천황 히로히토가 통수권자에서 어느날 갑자기 '상징'이 되었지만, 그가 이끄는 황실의 이미지는 주로 천황에 의해서만 구현되었고 황후를 비롯한 여성 황족은 천황의 뒤에 가려져 있거나 무대 중심에서 비껴나 있었다. 쇼와 황후가 후년에 올수록 국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증가하고 행사 참석이나 여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무대의 중심은 히로히토였다. 그러나 히로히토 다음 대부분은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황실은 황후와 황태자비를 전면에 세우지 않고는 표상하기 힘들어졌다. 특히 시각 미디어가 황실의 연행과 대중 사이를 잇는 주요 매체로 등장하면서 황실의 극장성을 구현하는 주역은 여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공식적인 시선은 항상 천황과 황태자에게 먼저 향하지만, 대중의 관심과 환상을 자극하는 것은 여성 황족원이다.

그러나 황족 여성이 극장의 주역으로 등장한 사실이 갖는 젠더적 함의는 그리 단순한 것 같지는 않다. 집중조명의 대상이 되면서 가시성과 영향력이 증가했겠지만 그만큼 취약성도 커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언급한 대

48 『朝日新聞』, 1990. 1. 6.

로 전후 천황제가 세속권력이 제거된 채 극장성만 그 존재 근거로 부여받게 되고 미디어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천황제도는 일종의 미디어 합성물 혹은 미디어를 통해 중재된 대중소비물로 일반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다. 학교 교육에서도 현대 천황제에 대해 별로 다루지 않는 만큼 일반인들이 천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감시와 제약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개성이나 사적인 욕구를 선블리 드러내는 것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 미치코와 마사코만 비교해 봐도 미디어 노출에 의한 취약성은 큰 차이를 보인다. 과거 미치코는 황실 안에서 따돌림을 받고 고생을 했지만 주로 추측과 루머의 대상이었다면 마사코나 기코의 경우 결혼 전부터 일거수 일투족에 카메라 렌즈가 근접해 가면서 ‘포장’과 ‘절제’의 필요성이 훨씬 절실했다. 또한 황실을 보도하는 미디어의 태도에도 지난 수십 년 사이 큰 변화가 있었다. 궁내청에 의한 압력과 지침이 있다고는 하나 황실이 악의적인 비난과 추측성 보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빈도가 훨씬 증가했다. 대략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천황가에 대한 험담이나 스캔들은 공식적으로 보도하지는 않는다는 금기가 매체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지켜졌다면, 1990년대 들어서는 “미치코 배싱”, “마사코 배싱”, “황태자 배싱”, “천황 배싱” 식의 표현이 통용될 만큼 황실이란 ‘성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런 금기를 깨는 분기점이 여성 황족이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현재의 ‘황실의 위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점 중의 하나가 황실의 극장성과 젠더가 서로 얽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천황제에 새로운 형태의 극장성이 요구되면서 황후와 황태자비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게 된 것과, 1990년대 이후 미디어의 천황가 배싱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전후 천황제를 둘러싼(보호해 온?) 금기가 젠더적 측면에서 교란되고 균열을 일으켜 온 셈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한 천황가

배성이 주로 ‘열린 황실’에 대한 우파들의 불만에서 촉발된 것이라면,<sup>49</sup> 보다 ‘진보적’ 입장에서의 천황제 비판 역시 양성평등이란 가치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젠더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요한다. 양성평등 의식이 훨씬 고양된 현재 국면에서 지금까지 고수해 온 황실의 극장성은 감동을 주기 힘들거나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호화로운 주니히토에에서 ‘속박’과 ‘구속’을 읽어낸 것처럼 관객들은 개성을 무시한 채 정형화된 틀만 고집하는 황실의 연행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황태후를 뵈러갈 때 했던 하얀색 헤어밴드. 그 이전까지의 패션을 고려할 때 분명 마사코 씨가 골랐다고는 할 수 없다. … 마사코 씨 정도로 유능하고 총명한 여성을 순식간에 이 정도로 바꾸어버리는 전통이라는 것에 위협감마저 느꼈다.”<sup>50</sup>는 30대 주부의 목소리나, “의복에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관, 역사라 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드러난다. 그동안 살펴본 바로는 마사코 비는 좋은 머리와 아주 훌륭한 감각을 가진 것 같다. 좀 더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고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마사코 비는 옷 갈아입히기 인형이 아니지 않은가.”<sup>51</sup>라는 40대 남성의 지적은 황실의 극장성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을 환기시킨다.

정리하자면, 황실로 시집 온 여성들의 역할은 후손을 낳는 것에 덧붙여 황실이라는 극장에서의 ‘공연’을 통해 황실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황실의 존재 당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황실의 여러 의례나 의식 외에도 황족이 담당하는 ‘공무’는 이런 공연이 펼쳐지는 공식적인 장이고, 실제 천황이나 황태자 부부는 정기·부정기 공무 일정이 빈번하다. 그러나 마사코는 결혼 이후 공무 수행에 그다지 의욕적이지 않는 것으로 비쳤으며, 실제 공무를 거의 수행하지 못했다.<sup>52</sup> 황태자 부부에 대한 비난 중

49 박진우, 「여성·여계천황론과 상징천황제」, 2쪽.

50 『朝日新聞』, 1993. 5. 5.

51 『朝日新聞』, 1993. 6. 26.

52 에컨대 궁내청 홈페이지([www.kunaicho.go.jp](http://www.kunaicho.go.jp))에 공개된 마사코의 공식직함은 2013년 4월 현재 일본 적십자사 명예부총재가 유일하다. 반면 천황의 둘째 며느리인 기코는 일본적십자사 명예부총재 외에 결핵예방회 총재, 은사재단모자애육회 총재, 일본학술기금 명예특별연구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하나는 이 부부가 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노쇠한 천황 부부에게 공
 무가 집중되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마사코는 또한 반복되는
 질병과 천황 부부를 포함한 다른 황실 가족들과의 갈등설을 불러일으키며
 황실을 우아한 극장무대보다는 추측과 스캔들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비
 난을 받았다.

그러나 마사코에 대해 공무 소홀과 연행 의무 불충족을 운운하기에는
 결과만 탓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살펴본 대로 “출산 먼저!”
 를 이유로 마사코의 운신에 많은 제약을 가한 것은 오히려 황실과 궁내청
 쪽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다 중요하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히 세
 속화된 현대사회에서 왕정이 어떤 역할과 모습으로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일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황실이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극장’과 ‘연행’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된다.
 예컨대 근년의 사례로 이야기 하자면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천황 부부
 의 피재지 방문과 위로가 가져온 긍정적인 반응 정도가 황실이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의 가장 현실적인 최대치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의 역할은 아마도
 국내적으로는 자선과 문화행사, 대외적으로는 ‘황실외교’ 정도일 것이다.
 이 경우 황실 여성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천황직 자체도 포함해) 더 큰 역할을 위
 임하는 것은 황실의 연행 효과를 보다 가시화시키는 전략일 수 있으며, ‘열
 린 황실’ 요구에 부응하는 한 가지 방법일지도 모른다.

## 6. 결론

황태자 나루히토와 마사코를 둘러싼 환경과 그 안에서의 생활은 낭만적인
 ‘동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구래의 제도를 완강히
 고집하는 세력과 무자비한 미디어의 관음증적 보도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힘겨운 ‘저항’을 시도하다 꺾이고 마는 주인공들의 잔혹스토리, 나아가 고
 부 갈등, 동서 경쟁, 신입 며느리의 시련 등의 주요 주제가 망라된 통속드라

마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는 ‘황태자 퇴위론’마저 활자화되면서 이 시대착오적 이야기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예측이 힘들 정도다.

사실 마사코의 시련이 제기하는 젠더 문제의 핵심은 아주 고전적이고 상투적이다. 그것은 살펴본 것처럼 ‘남계 만세일계’의 족쇄가 얹어내는 통속극이기 때문이다. 마사코의 시련이 드러낸 것은 강고한 부계·부권적 시스템 속에 갇힌 여성의 딜레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마사코의 몸에 가해졌던 정치적·문화적 압력들,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야기된 질병인 적응장애/우울증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그것과 갈등하는 여성들이 보여온 아주 전형적인 몸적 반응 방식이다. 살펴보았듯이 황태자 부부(특히 마사코 비)가 겪어야 했던 시련의 배경에는 황위 계승자, 보다 정확히는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황태자의 결혼이 “황실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란 수사 속에 적극적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실제 마사코에게 기대되었던 최우선의 역할은 아들을 낳는 것이었다. 전후 상징천황제와 ‘열린 황실’ 등 시대적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제도적 틀과 모범적 지향점이 모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제의 핵심에는 시대의 변화와 전혀 무관한 남계 왕조시대의 논리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3년 12월 궁내청 장관이 (마사코에게 더 이상의 생물학적 재생산을 기대하는 대신) 황태자의 동생 후미히토에게 “셋째를 낳기를 강하게 희망한다”는 입장을 공식 기자회견에서 피력할 정도로 황실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집단은 시대의 변화를 완강히 부정한다. 이처럼 마사코의 ‘질병’과 ‘장애’가 결국은 남계 출계를 잇는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는 점은 일본에서 근대성과 개인성, 그리고 젠더가 서로 연결되어 그동안 얹어왔던 일본 여성의 역사에 도전하는 불편한 사실이다.

아주 냉소적으로 보자면 마사코가 한 역할이란 결국, 황실이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지독한 보수주의를 드러내어 논쟁거리로 점화시킨 불쏘시개 역할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물론 그 불씨마저도 학수고대하던 남자 황족이 태어나면서 진화되고 말았지만 ‘여제의 가능성’이라는 주제가 큰 논쟁거리로 부각되고, 이 과정을 통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천황제가 내포한 젠더

문제에 주목하게 되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천황제와 관련된 현재의 제도적 틀을 고수하고 싶은 보수파들이 논쟁을 서둘러 무마시키고 싶어 했던 정황이야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어렵게 시작된 논쟁이 그저 다시 묻힌 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보수파들이 가장 우려해야 할 점인지도 모른다. 논쟁을 계속 이어가면서 황실의 존속과 역할에 대한 장기 비전을 모색해 가기에는 일반인들의 관심과 개입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마사코의 시련은 현대 일본사회에서 천황제의 존재 방식에 대한 질문과 맞닿아 있으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일본 황실의 딜레마로 지적하는 ‘유구한 전통’과 ‘열린 황실’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의 질문이 된다.

마지막으로, 마사코 본인은 이 모든 극적인 전개 과정에서 어떤 ‘주체’였을까? 적응장애/우울증으로 상징되는 가련한 희생양의 이미지 외에 좀 더 적극적인 다른 독해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을까? 앞서 인용한 일간지 독자들이 관찰했던 ‘씩씩’하고, ‘유능하고 총명’하며, ‘좋은 머리와 아주 훌륭한 감각’을 가졌던 결혼 전의 마사코는 정말로 약혼 결정과 동시에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개인의 개성은 물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행동거지 하나하나에도 엄격한 금기가 적용되는 황실이라 마사코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황실에 들어갔고 들어간 후에는 어떤 시도를 했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다만 그동안 황태자의 발언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공식적으로는 황실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도(“시대의 변화에 어울리는 새로운 공무”)를 하고자 했고, 사적 영역에서의 ‘저항’(예컨대 핵가족적 가치를 중시)도 시도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마사코는 2003년 말 대상포진이 발병한 후 황실 시설이 아닌 친정집 별장에서 한 달간 요양을 했고, 이런 ‘과격’은 많은 비난과 비판을 부르기도 했다. 또한 해마다 정초에 열리는 황실 행사인 와카(和歌) 짓기 모임(歌会始)에서의 ‘고집스러운’ 면모도 이런 맥락에서 흥미롭게 다가온다. 한 기사에 따르면 마사코는 2001년 아이코가 태어난 이래 일관되게 ‘내 아이’에 대해서만 시를 지었고, 여기에 대해 궁내청 등에서 “자신의 위치에 어울리는, 좀 더 공적인 내용의 시를 지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

다. 마사코는 아이코의 등교 거부 문제 등이 불거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의 행사에서는 아이코를 소재로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3년에는 다시, 11년 전 아이코가 태어났던 날 밤의 정경을 읊은 것으로 보도되었다.<sup>53</sup> 가장 최근인 2013년 5월 초에는 네덜란드 새 국왕 즉위식에 나루히토와 함께 참석함으로써 11년 만에 공식 외유를 하기도 했다. 비록 아들 낳기의 실패로 천황직의 직계 계승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현 헤이세이 천황이 노쇠한 상황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마사코의 새로운 비전(혹시 그런 것이 있었다면)이 펼쳐질 좀 더 우호적인 장이 만들어질지 일말의 기대는 남겨두고 싶다.

53 『週刊朝日』, 2013. 2. 1.

## 특집 | 천황·자유·질서

### 전후 천황제와 젠더: 황태자비 마사코의 시련과 황실의 위기를 중심으로 | 권숙인

투고일자: 2013. 5. 10 | 심사완료일자: 2013. 6. 3 | 게재확정일자: 2013. 7. 31

이 연구에서는 황태자와 혼인 후 장기간에 걸쳐 '적응장애'를 앓고 있는 황태자비 마사코의 '시련'을 창구로 삼아 일본 천황제에 내포된 젠더 문제를 고찰했다. 마사코의 시련을 통해 천황제를 조망하는 것은 천황제도가 고수해 온 강고한 남성중심주의를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현대 일본사회에서 천황제가 겪고 있는 '위기'의 한 중요한 원인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황태자 나루히토와 마사코의 혼인이 "황실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는 수사 속에 적극적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마사코에게 기대되었던 최우선의 역할은 황위 후계자 아들을 낳는 것이었다. 전후 상징천황제가 '열린 황실'을 표방하며 새로운 모색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제의 핵심에는 시대의 변화를 부정하는 남계 왕조시대의 논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황위 계승의 위기에 직면한 2000년대 초두 여제의 가능성이 적극 타진되었으나 남계 후계자가 확보되자마자 여제 논쟁은 서둘러 봉합되었다.

남계 계승자 확보 문제 외에도 마사코의 시련을 가중시킨 것은 사회 전반의 변화와 무관히 천황가가 고수해 온 가부장적 이에(家)제도와 일종의 '극장국가'로서의 상징천황제가 내포한 근본적인 취약성, 그리고 이런 속성들을 뒷받침하는 논리로서 '만세일계'에 대한 믿음 등이 있다. 천황제가 고수하고자 하는 이들 '유구한 전통'은 일본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으며 마사코의 시련은 그 한 징후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마사코의 '시련'은 현대 일본사회에서 천황제의 존재방식에 대한 질문과 황실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

주제어: 상징천황제, 황태자비 마사코, 여성 천황, 여계 천황, 극장국가, 제도적 몸, 자연적 몸, 남녀 공동참회사회

### 영화 속에 표현된 천황, 그리고 터부 | 강태웅

투고일자: 2013. 6. 10 | 심사완료일자: 2013. 6. 19 | 게재확정일자: 2013. 7. 31

이 글은 일본영화에서 천황이 어떻게 묘사되어 왔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전전 일본에서 '일반인'이 천황의 신체를 대신해 스크린에 출연한 적은 없다. 전후가 되어서야 천황 역을 맡은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어떠한 제약도 없이 영화에서 묘사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천황의 숭고함을 해치는 '불경(不敬)'을 저지르지 않는 한에서 허용되어 왔던 것이다. 이 글은 터부를 피해 천황을 극영화에 표현하기 위해 일본영화는 어떠한 고안을 해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대 역사상 처음으로 천황을 주인공으로 하는 메이지 천황 3부작이 만들어진다. 이 영화에서

**Emperor, Freedom, and Order**

**Princess Masako's Ordeal and the Crisis of Japanese Imperial House: Gender and the Emperor System in Postwar Japan | KWEON Sug In**

Taking Princess Masako's prolonged 'ordeal' as a vantage point, this article explores the gender issues involved in the postwar emperor system of Japan. Even though many Japanese wanted to see the marriage of Masako and Crown Prince Naruhito as signaling "the beginning of a new era for the imperial house," Masako's first and foremost duty was giving birth to a baby-son who will succeed the imperial throne. And Masako's difficulties of and eventual failure in fulfilling this duty lie at the core of her post-nuptial hardship. This 'hardcore' logic of a patrilineal dynasty defies all the social changes, and it is not simply the ultimate cause of Masako's suffering but also the causes of current 'crisis' of the imperial house and emperor system. Additionally, fundamental vulnerabilities of the 'symbolic' emperor system which functions as a sort of 'theater state' as well as the conservative group's adamant 'belief' in the "emperor's unbroken descent line for ages eternal" also challenge the emperor system, bringing about discords and conflicts in various realms of Japanese society. In this regard, Princess Masako's suffering is merely a symptom of the crisis that surrounds the imperial household, and reflecting on her 'ordeal' leads to the question of how the Japanese emperor system is to survive in the future.

• **Keywords:** symbolic emperor system, women and the dynasty, Princess Masako, female emperor, female descent emperor, theater state, institutional body, natural body, Gender-equal Society

**The Representation of Japanese Emperors in Fictional Films | KANG Tae Woong**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how Japanese emperor has been depicted in Japanese fictional films. In prewar Japan, no movie existed in which 'a mere actor' played the role of the emperor. It was after 1945 that this trend began to change. Yet film-makers in Japan could only produce those movies under certain restrictions. The production of film was only permitted when it presented the emperor as a sublime figure. The focus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formula as well as the convention of the films.

The very first trilogy in which Meiji emperor was the protagonist was made in the 1950s.